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베네수엘라·이란 사태와 중국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언급했다.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비(非) 서반구의 경쟁자들이 우리의 경제이익을 훼손하고 미래에는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방식으로 서반구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란의 혼란은 중국의 중동정책에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게다가 트럼프는 11월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는데 중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사태가 중국의 입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중국 총수입량의 7% 정도이고, 이란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겠지만 다른 원유 수입원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규모이다. 당장 이들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등 주요 직책을 친(親) 마두로 세력이 차지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정국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일지도 미지수이다. 중국은 이란의 대외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란과의 경제·정치 관계를 조절해왔다.

2021년 3월 중국은 이란과 4000억 달러의 규모의 대이란 투자를 포함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가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중국은 최근 사태에서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트럼프의 행태는 많은 국가들의 반감을 사고 있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발 리스크를 혜택하는 방면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월에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마틴(Micheal Martin) 총리와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카니(Mark Joseph Carney) 총리가 양국 총리로서는 각각 14년,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한 마찰도 1월 들어 전기차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등의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행동반경이 더 넓어질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내전의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아프리카, 중남미로 전방위 외교를 펼쳤던 상황이 재현되는 셈이다.

올해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요하게 볼 부분은 최근 사태가 4월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3자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아 현재의 미·중의 소(小)타협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의 즉흥적 외교는 언제든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올해 시무식에서 외교 다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상황은 외교 다변화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 내용을 채워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연 배우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엔 소속 국가인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전개해 현지 대통령 마두로(Nicolas Maduro Moros)를 미국으로 체포해 왔고,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영토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란에서는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에 트럼프는 군사 개입 가능성 을 언급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어 이스라엘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국제관계의 상수이지만 해외에서의 군사 행동에는 소극적이라 파국적 사태는 출현하지는 않으리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 그 기대는 이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는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두 국가로부터 상당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긴밀한 정치관계를 유지해왔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

청춘 특집



김영준
호남대 컴퓨터공학과 3년

CES 도전 일지, 광주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제품의 기능을 익혔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답변을 준비하는 등 제품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쓴 결과 기업 관계자분의 칭찬을 듣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기대와 기대를 끌어온 뒤에는 베네수엘라로 돌아온 베네시안 엑스포(Venetian Expo). 부스 오픈 첫 날, 처음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고 준비한대로 실전을 치렀다.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의 질문에 제품의 핵심 차이를 설명하며 시연을 보였다. 작동 과정을 지켜본 관람객들은 “흥미롭다”, “멋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풀리자, 지나가는 관람객들에게 “How are you?”라며 먼저 인사를 건넬 여유도 생겼다.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에게 제품을 시연하고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면 상세한 질문이나 깊은 대화는 통역사님과 매니저님이 이어받아 진행했다. 놀랄 정도로 제품을 소개해야 한다니 토의 접수 800점 초반대인 나에게는 판세상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감 하루 전 지도교수님의 한마디에 용기를 냈다. “너도 기본 요건은 충분하니 경험 삼아 지원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교수님의 권유에 ‘밀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 학교 포털에서 ‘CES 2026 광주 공동관 프리젠테이션’ 공고를 봤을 때 나는 내용을 확인하고 주저없이 페이퍼를 닦았다. 전 세계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영어로 제품을 소개해야 한다니 토의 접수 800점 초반대인 나에게는 판세상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감 하루 전 지도교수님의 한마디에 용기를 냈다. “너도 기본 요건은 충분하니 경험 삼아 지원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교수님의 권유에 ‘밀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1차 전형에 이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나는 곧바로 실전 준비에 돌입했다. 내가 담당한 기업은 AI 기반의 통합 안전 플랫폼을 제작한 ‘올더타임(All The Time)’이었다.

기고



박진영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사업팀장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이슈가 연일 기사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 거대한 이슈 속에서 시민사회 역시 빠르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쟁점과 대안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공론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의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와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다. 기후위기와 돌봄의 공백, 지역 불균형과 공동체의 해체,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은 더 이상 행정이나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는 공의활동을 사회문제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대안을 실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공의활동은 단순한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이자 사회 변화의 실험장이며 민주주의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기반이다. 현장의 작은 실천은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쌓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으로 축적된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의활동은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꾹꾹히 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변화의 동기를 제공한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질수록 공의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제 공의활동은 단순한 선이나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며 변화의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공의활동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잘 설계된 일’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시가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의활동 지원사업’은 시민사회의 실천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의 힘으로 해법을 만들어가는 통로로서 매년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지역의 현안에 응답하고 공의의 가치를 확장해 온 과정이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여건상 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는 작년부터 광주시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비영리민간단체별 특성과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과 지원을 통해 시대적인 변화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최근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가 막막하다”는 고민이 적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체의 의지나 노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공의활동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합적이고 입체

얻을 수도 있다.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트럼프의 행태는 많은 국가들의 반감을 사고 있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발 리스크를 혜택하는 방면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월에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마틴(Micheal Martin) 총리와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카니(Mark Joseph Carney) 총리가 양국 총리로서는 각각 14년,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한 마찰도 1월 들어 전기차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등의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행동반경이 더 넓어질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내전의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아프리카, 중남미로 전방위 외교를 펼쳤던 상황이 재현되는 셈이다.

올해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요하게 볼 부분은 최근 사태가 4월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3자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아 현재의 미·중의 소(小)타협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의 즉흥적 외교는 언제든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올해 시무식에서 외교 다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상황은 외교 다변화가 제도화되면서 안 되고 실질적 내용을 채워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社說

‘슈퍼 지자체’ 광주전남 통합…과제도 산적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따른 정부의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은 크게 네 가지로 통합이 성사될 경우 ‘슈퍼 지자체’로 위상을 다지게 된다.

지원안에는 내년부터 본격화 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시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에 최우선 배정하겠다는 것과 현재 2명인 부단체장을 4명으로 늘리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속도를 내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창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지원안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관심은 단연 매년 5조원 씩 20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재정 지원안이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이라는 재정 항목을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지원 규모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추진 속도를 보면 이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다음에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4년으로 한정된 재정 지원안을 이제 정부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특별법에 기간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승부를 가르는 디테일은 지금부터.

통합 찬성으로 가시화 된 전남권 의대 설립

순천대가 재학생을 상대로 재투표를 실시해 목포대와의 통합에 찬성 의견을 이끌어냈다. 두 대학 간 통합은 물론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겼다.

순천대는 학생·교수·교직원 등 구성원 3자의 과반 찬성을 조건으로 목포대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난 달 23일 실시한 학생 투표 결과 과반을 넘지 못해 25일 만인 지난 16일 재투표를 실시해 50.34%라는 찬성을 통합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49.4%로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 참가율과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찬성을 향후 통합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 시켰다고 할 것이다.

학내 관점에서는 캠퍼스 간 기능 재배치와 유사 학과 통합·폐합, 교명 변경 등 갈등을 빚을 만한 민감한 사안이 많이 남아 있다. 두 대학 구성원들은 민감한 사안을 조율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재투표를 계기 삼아 통합이 연착륙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긴 대통령실 CCTV 등 증거가 공개돼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쿠데타의 위법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행동은 선택적으로 기억했다.

인간사회의 악(惡)은 진혹한 얼굴이 아닌 평범한 얼굴로 나타나 규정과 매뉴얼을 통해 수행된다. 내란의 부역자가 된 이들을 보면 떠오른 인물이 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기여한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그는 전범재판에서 “나는 단지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며 무죄를 주장

했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다. 특별검사가 적용한 죄는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행동하지 않은 죄”였다.

윤석열 내각의 내란방조죄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검은 한덕수와 관계인들에 대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그 의무를 벗어나고 대체로 끝이 남았다”며 증명을 구했다. 그 과정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의 법적 요건을 만들어 주려한 관료들이 있었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들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었다. 지난 겨울 12·3 내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독재를 꿈꾼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의 법적 요건을 만들어 주려한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들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었다.

지난 겨울 12·3 내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독재를 꿈꾼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의 법적 요건을 만들어 주려한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들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었다.

지난 겨울 12·3 내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독재를 꿈꾼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의 법적 요건을 만들어 주려한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들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었다.

지난 겨울 12·3 내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독재를 꿈꾼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의 법적 요건을 만들어 주려한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들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었다.

지난 겨울 12·3 내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독재를 꿈꾼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의 법적 요건을 만들어 주려한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들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었다.

지난 겨울 12·3 내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독재를 꿈꾼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의 법적 요건을 만들어 주려한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들은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었다.